

● 海外留學記

李 德 出*

名古屋大學이라고 하면 韓國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日本의 大學들중 그 하나에 속한다. 筆者는 이 大學에서 約 3年間 留學하였기에 그동안 보고 느낀 바를 간단히 記述하여 보고자 한다.

名古屋(Nagoya)는 日本國本土의 東京과 大阪과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으나 二次大戰以後 都市計劃을 시작하여 道路의 짜임새는 日本에서도 有名하며 더욱 道路의 폭이 100m의 곳이 있을 정도로 넓직한 한 道路에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으며 人口는 約 300萬정도 이나 그 地域이 넓고 넓어 日本에서 東京, 大阪에 다음가는 三大都市라 일컬고 있다.

名古屋大學은 名古屋地域에서 東쪽에 位置하며 여러 개의 公園중 범위가 가장 넓은 東山公園에 바로 隣接한 千種區不老町라는 곳에 자리잡고 부지 53萬2千m² 내에 學部의 건물들이 이곳저곳에 散在하고 있으며 도보운동 코스가 있을 정도로 넓직한 캠퍼스를 所有하고 있다.

이 地區 이외에도 6km 떨어진 곳에 있는 鶴舞公園에 인접하여 醫學部 및 부속병원이 別館으로 形成되어 있다.



그림 1. 名古屋大學全景

名古屋大學의 沿革을 간단히 살펴보면 1871年 5月(明治 4年)에 假醫學校, 假病院의 형식으로 開學한 以後, 1978年 公立醫學校→1903年 愛知縣立醫學專門學校→1920年 愛知醫科大學→1931年 名古屋醫科大學으로

*正會員: 檀國大 工大 副教授(工博)

發展하고 나서 1939年(昭和 14年)에 醫學部 및 理工學部로써 名古屋帝國大學으로 昇格한 以來 二次大戰의 終戰과 함께 名古屋大學(舊制)으로 改名하고 醫學部, 工學部, 理學部를 위시하여 全 5個學部로 구성된 이후 1949年에 第八高等學校 및 岡崎高等師範學校를 위시하여 3個專門學校를 통합하여 9個學部に 8個研究科와 日本唯一無二의 프라즈마研究所(14研究部門)을 포함하여 空電研究所(7研究部門), 環境醫學研究所(6研究部門), 成圈科學研究所(5研究部門) 및 기타 35個의 부속기관을 둔 現在의 名古屋大學(新制)으로 그 규모가 확대,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工學部에는 現在 15個工學研(103講座)로 구성되고 있으며 15個工學科別로 圖書館과 5~6名の 職員을 文科事務室이 있고 工學部全體의 종합도서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人的 구성은 教授 103名, 助教授 68名, 講師(專任과 同一) 23名, 助手(助教) 204名 以外에 工學部소속職員 291名이다(여기에 記述한 數字는 1975年 5月의 통계를 基準한 것임). 入學定員은 學部 610名, 大學院碩士課程 200名, 博士課程 106名이며, 卒業生數는 學部 9666名, 工學碩士 2430名, 工學博士 446名(課程, 論文을 合한 수)을 배출하고 있다.

工學部내 電氣工學系分醫는 電氣工學科, 電氣工學第 2學科 및 電子工學科로 나누어져 있으며 各科別로 6講座가 설정되어 있으며 한 講座에 1人的 教授와 助教授(혹은 專任講師) 1人 및 助手 2~3人和 技官 1~2人씩으로 형성되어 있다.

筆者의 研究室은 電氣工學第 2學科에 屬한 誘電體의 物性分野講座인 家田研究室이며, 이 研究室에서는 誘電體(主로 高分子)의 絶緣破壞實驗室, 電氣傳導測定實驗室, 光電流特性測定, TSC 및 TL測定, 誘電特性測定 및 有機박막의 특성測定, 電荷의 移動度 및 코로나 放電實驗과 界面現象測定實驗室로 區分되어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眞空蒸着臺(蒸着器 2臺)이 별도로 있어 試料를 만드는데 不便이 없다. 人的 구성은 教授 1人, 助教授 1人(三重大學으로 傳出하여 現在講師로 代置), 助手 3人(한사람은 現在 愛知工大講師로 傳出), 技官 1人에 大學院學生 博士課程 4名(2名 금년 봄에 修了), 碩士課程 5名을 포함하여 國內研究生의

身分으로 研究中인 研究生 4명들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研究하고 있으며 1個月에 3~4회의 研究發表會를 家田 研 自體內에서 談話會형식으로 研究員各者가 研究한 實驗結果와 考察을 번갈아서 公表하게 된다. 이 談話會가 있을때는 名古屋大學의 週邊에 있는 三重大學教授 1人, 名城大學教授 1人 外 2名, 愛知工大助教授 1人 外 2名, 信州大學助教授 2人 및 2個工專에서 3名의 先生들이 참석하여 서로가 意見교환과 검토를 하는 研究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 研究 member는 여름休暇를 맞이하면 每年 일주일간 시원하고 고요한 곳으로 研究여행을 떠나며 이 時間에는 텍크스트 韓권을 정하고 하루에 12時間 정도, 運강 형식으로 공부하며 이 과제가 끝나서 歸鄉(家)時에는 10여臺의 自家用택시에 분승하여 그곳 주위의 명승고적을 구경하며 즐거운 휴식과 오락을 가지며 즐긴다.

이러한 研究분위기에서 大學院學生들은 방학이란 휴가는 아랑곳없이 실험실내의 전등이 주야 消燈될 날이 없을 정도로 활발히 研究하고 있다. 日本 國內에서도 日曜日에 校內食堂이 개점되고 있는 大學은 名古屋大學 뿐이라 일컬고 있으니 얼마나 열심히 努力하고 있

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으니 韓國의 大學生들도 분발하여 熱心히 노력해야 되겠음을 느꼈다. 미비한점이 많으나 名古屋大學의 一面을 소개하였으나 다음 기회에 프라스마研究所의 近況을 소개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림 2. 필자의 실험실 일면

그림 2는 코로나 放電實驗 및 電位減衰(쇠) 특성 測定장치이며 그 옆으로 短絡電流測定 및 界面現象의 조사를 위한 계기들이 놓여 있다.

◇ (p.24에서 계속)

끝으로 本 調査에 있어서 使用計器의 差異 및 調査員의 測定에는 약간의 誤差는 甘受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가지 狀況을 論하는데는 別 支障이 없었으며 수고하여 주신 專門委員 鮮于學永, 宋壽永, 柳完秀,

朴成熙, 尹東烈, 盧泰天 그리고 調査員 여러분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이 調査가 良質의 電氣供給에 一助가 되기 바란다.

有備無患精神으로 民防衛隊列에

앞장서서 모든 事態에 處理해 나갑시다

너도 나도 기술배워 과학한국 이룩하자